

오랫만에 선교지를 떠나서 세상사람들이 사는 곳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것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모든 삶이 코로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것입니다. 하나님 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관계 없이 결국은 모두 죽습니다. 죽기 전에,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코로나는 무서워하는데 하나님도, 영원한 지옥불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이 선교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옥불을 두려워하고, 주님 만날 날을 두려워 한다면 더 많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더욱 주님께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믿음을 잃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천국을 침노하며 잠자는 영성이 깨어 회복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최윤섭 선교사

이라크 에서

샬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잊혀지고 쌀쌀한 계절이 다가 섰네요. 이곳도 지난주 부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시작되자 집집마다 여름 먼지를 털어내는 카펫들이 줄줄이 널려 있고 과일 가게엔 탐스러운 석류들이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저희는 미국을 방문하여 코로나 기간 동안 천국가신 어머니 산소와 생전 섬기셨던 LA의 교회를 방문하여 저희 대신 어머니 장례를 치러 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렸고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또한 부모님 생전 교우분들과 목사님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아쉬움이 감사로 바뀌는 치유의 시간도 갖었습니다.

그외에도 교회들을 방문해 이곳 사역을 알리고 동원과 동역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 뿐아니라 계획하지 않았던 많은 만남을 통해 이곳을 알리게 되면서 우리 삶, 4역과 시간이 오직 1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야F간 사태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 NGO와 투자자들의 진로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10월 초 총선을 치루느라 도시가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이*크는 선거 부정기 많고 정부를 불신하고 있어 국민 선거 참여율은 30%로 치러졌습니다. 다행히 미국군의 철수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않아 쿠*디스탄은 안심된 연말을 보낼것 같습니다.

< 하*삼 모술 지역 난민 캠프 >

캠프 교육에도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학기 저희가 시작한 서류없는 자녀교육 (undocumented children)에 현지 BCF 난민 캠프 측에서도 직접적인 참여로 8-12세 40명 교육을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13-18세 청소년 40명과 4-7세 25명 교육을 담당합니다.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3천 명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시설로는 부족함이 크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리더를 키우기 시작한 지난 학기를 바라보며 더 확장된 새 학기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BCF 현지 NGO 단체와 협력을 통해 난민 캠프 교육을 세우고 확장 하도록 / 이에 필요한 인력 보내주시고
2. 변동이 많은 캠프 안 교사 들의 교육이 잘 이뤄지고 안정되도록
3. 현지 교회 IAC 청년들을 통해 같은 아랍어권인 캠프 학생들과 가족들과의 교제가 열려지도록
4. 캠프 교육과 훈련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와 예배를 위한 교육 센터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위치를 찾고 결정하도록/ 팀워크를 위한 장.단기 선교사 동원을 위해 ~
5. 저희가 1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 안정된 마음을 지켜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 다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편2:8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 한젠슨 & 조이스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췌장암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몸속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네팔 이예신 선교사- 유방암이 간과 머리에 전이 되었다고 병원에 입원하여 간 수치를 좀 올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척추끝 부분 통증이 심하여 MRI 검사 결과 줄어든 암으로 인해 뼈부분이 연약하여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님이 유방암이 림프로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6. 강명철 선교사 - 영적 전쟁에서 승리 할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도록.
7. 이지향선교사 - 척추 협착증과 발 족저근막염이 치유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8. 김에스더 선교사 - 주님의 은혜로 5 시간에 걸쳐 심장 수술을 잘 마치고 중환자실에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온전하게 회복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1년 11월 28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인도 콜카타 이야기

지금 인도는 힌두교 의 종교 축제가 막 끝났습니다. 예전과 달리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열린 행사라서 정부에서 사전 뉴스와 보도 그리고 지역별 마다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한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주시 하면서 힌두 축제인 뿌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는 동시에 저녁 9시부터 오전6시까지 야간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 탓인지 우기철이 거의 끝난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지에도 침수가 된지 2주가 되었지만 아직도 곳곳에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역의 기쁨

이 가운데 저희 사역자들과 저는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전에는 힌두 축제하는 기간 동안 기도회나 세미나를 했지만, 이번에는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장 1-2절) 말씀을 주셨기에 시내에서 부터 시골 곳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사역자들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로 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식사 교제를 하면서 사역의 기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 & 심방사역).

집 구하기

힌두 명절을 앞두고 저희가 사는 집 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하면서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오토 바이 전도대



-전도 집회



-식사 교제



<기도제목>

- 1.저희 사역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역을 다닐 때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하루속히 사역지 곳곳에 하수구 시설과 배수시설 들이 복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3.저희 교인들과 저희 사역 자 들과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 해주세요.
- 4.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저희 가정 이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희중. 전문희 선교사

광 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714-446-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자전거를 타고 돌아도 하루에 다 못 볼 만큼 큰 동호에도 가을 낙엽이 드리웁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시작된 이 도시 역시 여느 다른 나라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전염에 대한 불안과 함께 일상을 회복하고 즐기고자 하는 열망이 긴장 가운데 공존하는 것을 봅니다. 짧은 가을을 만끽하려는 인파들이 거리와 공원에 가득합니다.

일요일 기관사업은 훈련 받은 워시팀이 활력을 이끌며 청년층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BJ 스쿨의 아이들은 키가 자라며 믿음도 부쩍 자라 최근엔 배운 악기들로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8 월부터 시작된 영어GBS는 다양한연령과 계층(교수, 학생, 직장인 등)이 모이고 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상황과 지역적인 경계를 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며 손 모아 응원하시는 동역자님들 덕분임을 알고 감사 드립니다..

또래 친구들이 휴대폰을 보며 놀 때, BJ스쿨 아이들은 함께 모여 워십송으로 피아노와 기타, 드럼을 연습하며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짧은 3년의 과정이지만 이기간을 통해 아이들 모두가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덩치는 크지만 마음은 여린 17살 K(좌)는 요리사가 되게 꿈입니다. 이젠 저에게서 한식까지 어깨 넘어 배우는 중입니다. 커피를 잘 내 리는 16살 R(우)는 한 학기 배운 드럼으로 요즘 일요일 기관에서 워시팀으로 신나게 봉하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위해 배우고 봉사하는 이들이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새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13:1)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John 13:1)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온 힘과 열정을 다해 100%의 사랑(full extent)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제가 은혜를 입어 이 땅에 왔습니다.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사랑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 1. 영어 GBS D훈련 멤버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합당케 하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2. NH 기관의 장년/청년 D훈련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 3. BJ스쿨 L 선생님이기쁨과 감사 가운데 학생들을 잘 보살피도록.

- 조OO & 윤OO 선교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은 날이 갈수록 더 삭막해지고 험악해지는 선교지에서 순간 순간마다 어려움과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본 교회의 사랑과 후원으로 인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 가족은 날마다 본교회를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정미 선교사와 이은원 선교사가 이래와 같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방문 목적은 최정미 선교사의 심장 검진과 처방을 받기 위함이고 현재까지 치아 문제로 4개를 발치했고 총 5개의 발치된 부분에 임프란트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은원 선교사는 종합 검진을 하게 되고 저 역시 간단한 치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의 딸 이사라도 동행합니다. 이 이유는 저희 사라는 이제 23살이지만 치아에 성치가 없고 아직 젖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젖니 아래로 성치가 올라와야 정상인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듣기 위해 방문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원 & 최정미 선교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감사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기 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여름 미국 방문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지난 7월에 과테말라로 돌아 온 후 8년동안 사역했던 깨짤데낭고의 교회사역을 현지인 목사에게 위임하고 사역거점을 과테말라 시티로 옮겼습니다. 옮기자 마자 제 2의 La Gracia 교회 개척과 GMI Guatemala 사무실을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게 사역에만 몰두하는 저의 마음을 좋지 않게 보셨는지 서두르지 말라는 사인으로 지난 9월에 코로나에 걸리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달 동안의 코로나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 개척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Local이 정해져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 달말에 끝나면 12월 5일 첫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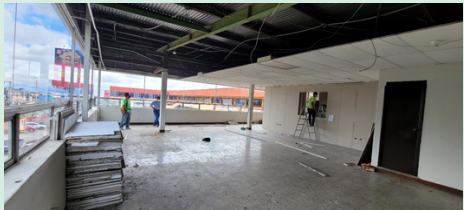
지난 8년동안 아내인 최재숙 선교사의 건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사역에만 매진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셔서 사역지를 고도가 낮은 과테말라시티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지난 봄까지만 해도 과테말라시티에서의 제 2의 사역이 시작되려면 최소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현지인 동역목사를 이미 예비하셔서 붙여주셨고, 또한 교회개척을 위한 재정을 놓고 기도했는데 송도은혜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교회처소를 얻을 수 있었고 내부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저희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중보와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기도제목〉

- 1.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선교사가 되도록
- 2. 부족한 GMI 과테말라 사역 재정이 채워지도록
- 3. 과테말라시티/깨짤데낭고 은혜교회(라 그라시아)의 부흥을 위하여
- 4. 2022년 2월 GMI과테말라 신학교의 개교를 위하여
- 5. GMI 과테말라 선교센터 건립을 위하여

- 최용준 & 최재숙 선교사



안녕하시죠*^_^*

늘 저희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은 위드 코로나로 가기위해 애쓰고 있으나 코로나가 다시 급증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경제와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주님의 뜻을 좇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하시길 기도합니다. *^_^*

- 〈기도제목〉
- 1. E 국이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회복 되기를
 - 2. E 국의 경제와 일상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아래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 3. 한글수업과 도서보급(전도책) 그리고 인형극을 통한 복음스~가 순적하게 이루어 지도록
 - 4.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고 건강을 잘 지켜 갈 수 있도록
 - 5. 비자문제가 잘 해결되고, 안전할수 있도록

- 이OO & 장OO 선교사

샬롬. 케냐에서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청년 단기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케냐 현지 local school이고 유치원부터 초등 4학년까지 200여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영어 및 컴퓨터(기초,위드), 예체능을 가르쳐주면 좋겠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그이상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를 소망합니다. 관련하여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